

몰리스 펫샵 강아지 판매 실태 조사 보고서

2016년 9월 27일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 캠페인팀

몰리스펫샵은 2010년 신세계 이마트 자체 브랜드로 시작하였다. 몰리스펫샵은 낙후되어 있는 국내 반려동물산업의 구조에서 유통구조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의 몰리스펫샵 조사보고서의 목적은 강아지 번식·판매업이 존재하는 한 강아지 공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몰리스 펫샵의 분양산업을 종식시키는 데에 있다. 국제적으로 반려동물 번식산업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에서 대기업이 개를 사고파는 산업에 뛰어들다는 것은 비윤리적인 산업을 통해 이윤을 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소규모 개인 브리딩이 아닌 대규모의 반려동물 번식·판매업은 근본적으로 동물복지가 불가능하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은 펫샵에서 동물을 사고파는 문화를 바꿔야만 가능하다. 동물자유연대는 몰리스 펫샵의 변화를 촉구하며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다.

- 조사목적: 몰리스펫샵에서 팔리는 강아지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분양사업의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함이다.
- 조사대상: 몰리스펫샵 매장, 강아지 공급처 A, B업체
- 조사기간: 2016년 6월~9월

1. 몰리스 펫샵 현황

몰리스 펫샵은 이마트에서 직접 운영하는 반려동물 전문 매장으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반려견인 몰리의 이름을 붙여 만들어졌다. 몰리스 펫샵에서 다루는 분야는 분양, 병원, 미용실, 호텔, 유치원, 카페 등이며 2016년 8월 기준으로 전국에 28개의 매장이 이마트 내에 입점해 있었으나, 2016년 9월 9일 스타필드 하남에 몰리스 펫샵이 입점하면서 29개로 늘어났다.

현재 몰리스 펫샵은 분양사업을 벌이며, 매장에서 강아지를 직접 전시하여 판매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가 조사한 몰리스 펫샵 하나의 매장 당 강아지 전시 마릿수는 다음의 표와 같다. 몰리스 펫샵은 2016년 기준 매장 당 평균 약 9마리의 강아지를 전시하고 있으며, 현장 조사에 따르면 한 달에 약 10여 마리의 강아지가 팔린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전체 29개 매장

에서 한 달 평균 총 290여 마리의 강아지가 판매되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전국의 몰리스 펫샵에서 다달이 팔리는 290여 마리의 강아지가 어디에서 공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뒤따른다.

<표1. 몰리스 펫샵 매장 당 전시 마릿수>

(단위: 마리)

| No. | 견종 | 성수점 | 청량리 | 자양 | 양재 | 센트럴시티 | 월계 | 킨텍스 | 부산 | | | 안산 | 분당 |
|-----|-------------|----------------------|-----|----|----|----------------------|----|----------------------|----------------------|----|-----|----|----|
| | | | | | | | | | 센텀시티 | 서면 | 해운대 | | |
| 1 | 말티즈 | ¹ (인천) | 2 | 1 | | ² (인천) | 3 | ¹ (파주) | | 1 | 1 | 3 | 2 |
| 2 | 포메라니안 | ¹ (시흥) | 1 | | | | 1 | ¹ (인천) | ² (시흥) | | 1 | 1 | |
| 3 | 비숑프리지제 | ¹ (용인) | 1 | 1 | | | 1 | | ² (시흥) | 1 | 1 | | |
| 4 | (장모)닥스훈트 | ¹ (시흥) | 1 | 1 | 2 | ¹ (시흥) | 2 | ¹ (시흥) | ² (시흥) | 2 | 1 | 2 | 1 |
| 5 | (장모)치와와 | ¹ (용인) | | 1 | 1 | ¹ (인천) | 2 | ¹ (시흥) | ¹ (시흥) | 2 | 1 | 1 | 1 |
| 6 | 불독 | ¹ (용인) | | | 1 | ¹ (시흥) | | | ¹ (시흥) | 1 | | | |
| 7 | 서틀랜드집독 | | | | | ¹ (시흥) | | ¹ (시흥) | ¹ (시흥) | 1 | | | 1 |
| 8 | 시츄 | | | | | ¹ (시흥) | | ¹ (인천) | | 1 | | 1 | 1 |
| 9 | 푸들 | | 2 | 2 | 2 | | 2 | ¹ (시흥) | ¹ (파주) | 2 | 2 | 2 | 1 |
| 10 | 베를링턴 테리어 | | | | | | | ¹ (파주) | | | | | |
| 11 | 웰시코기 | | | 1 | | ¹ (시흥) | 1 | | ¹ (시흥) | | | | |
| 12 | 아메리칸 코카스파니엘 | | | | | | | | | 1 | | | |
| 13 | 페키니즈 | | | | | | | | | 1 | 1 | | |
| 14 | 제페니즈친 | | | 1 | | | | | | | | | |
| 15 | 요크셔테리어 | | | 1 | 1 | | 1 | | | | 1 | 1 | |
| 16 | 기타(모름) | | 1 | | 2 | | | | | | | | |
| 합계 | | 6 | 8 | 9 | 9 | 9 | 13 | 8 | 11 | 13 | 9 | 11 | 7 |

* 숫자 아래 괄호()는 강아지의 출생지를 나타낸다.

2. 몰리스 펫샵 강아지들의 출처와 문제점

1) 몰리스 펫샵의 공식 공급처

공식적으로 전국 몰리스 펫샵의 강아지 공급처는 A업체와 B업체 두 곳이다. 두 업체에서만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은 몰리스 펫샵 관계자가 직접 언급한 내용이다. 2016년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몰리스 펫샵 관계자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펫샵이기 때문에 개인을 통해 동물을 받을 수 없는 상황’라고 설명하며 ‘강아지 등을 공급받는 업체는 쾌적한 환경에서 전문적 브리더들을 통해 분양을 받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펫샵에선 100% 분양이 완료되며, 분양이 되지 않는 동물들은 연령대 별로 분양가를 낮춰 판매해 현재까지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동물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¹⁾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016년 6월 경기도 모처에 위치한 A업체의 현장 조사를 나갔다. 외향 상 작은 컨테이너 몇 개와 큰 컨테이너가 하나 있었고 검정색 가림막이 설치된 하우스가 하나 있는 형태였다.



사진1. 몰리스 펫샵에 강아지를 공급한다는 A업체의 외관

몰리스 펫샵과 거래하고 있는 또 다른 B업체는 경기도 모처에 위치한 동물병원으로 주변 탐문 조사결과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람의 출입은 잘 보이지 않았다. 지난 6월 동물자유연대의 현장 조사 당시 동물병원 안에서 개 짖는 소리는 나지 않았고 병원 내부에는

1) '신세계 이마트에 무슨 일이...' '동물판매' 논란으로 구설수, 환경TV 6월 10일자 기사.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221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69&aid=0000147373>

자견이나 모견의 흔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 9월 2차 현장 조사 시에는 몇 마리의 개들이 펜스로 구분된 구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업체는 번식장의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없었으며, 실제로는 개를 직접 번식시키지 않고, 경매장이나 번식농장에서 개를 수급받은 뒤 몰리스 펫샵에 납품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추측한다.

2) 몰리스 펫샵의 문제 제기

① 실제 판매 강아지 수와 공급처의 번식 강아지 수의 불일치

동물자유연대는 2016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두 업체를 모두 현장 조사하였다. 2013년 언론에 등장한 A업체는 몰리스 펫샵이 판매하는 개의 절반가량이 번식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면적 1,154㎡의 번식장에서 키우는 종견(種犬)은 총 300마리. 강아지 50마리, 은퇴견 30마리를 제외하고 실제 번식 활동을 하는 수는 220마리이다. 이 가운데 수컷과 암컷의 비율은 3대 7정도다. 번식을 위한 수컷의 ‘전성기’는 2,3살, 암컷은 6살 이전이다. A업체의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1년에 한번 씩 새끼를 낳는데, 2년은 새끼를 낳고 3년째는 쉬는 식”이라며 “평생 5,6번 정도 새끼를 낳게 된다.” 고 했다.²⁾

대표의 말에 따르면 2013년 당시 번식활동을 하는 220마리 중 암컷은 154마리, 수컷은 66마리이다. 2013년 기준으로 전체 몰리스 매장을 20개 매장으로 보고 각 매장에 나와 있는 마릿수를 평균 10마리로 잡아 계산해보았다. 직접 몰리스 펫샵 매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각 매장당 한 달 안에 10마리가 팔린다고 한다. 그렇다면 일 년에 필요한 마릿수는 2400마리이다. 154마리가 일 년에 한 번 번식을 하여 평균 4마리가 태어난다고 볼 때 616마리가 A업체에서 태어난다. 모견이 일 년에 두 번씩 번식한다고 가정했을 때 1222마리가 된다. 이 업체 대표의 주장대로 2년 일하고 한 해를 쉬는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154마리 중 번식 가능한 개들의 숫자는 더 줄어든다. 업체 대표가 언급한 대로 안식년 기간의 개들을 30%로 보면 일 년에 출산 가능한 마릿수는 103마리다. 마리당 4마리를 출산한다면 1년에 412마리, 2년이면 824마리다. 결국 A업체는 전국 몰리스 펫샵에 공급하는 강아지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는 언론에 공개한 것보다 개들의 숫자가 더 많거나, 마리당 번식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점의 경우 한 달에 팔리는 강아지가 최소 5~6마리라고 한다. 그렇다면 팔리지 않고 적체되는 강아지는 더욱 늘어난다. 실제로 매장에는 평균 10마리 이상의 강아지들이 있다. 이 중 10마리가 팔린다고 가정하면 일 년에 두 번 안식년 없이 새끼를 낳게 해야만 몰리스 펫샵에서 팔리는 강아지의 절반을 A업체에서 공급하는 것이 된다.

몰리스 펫샵 관계자의 언급대로 전체 매장의 강아지를 A, B 두 업체에서만 공급받고 있

2) ‘비닐하우스에 철창 가득 수백 마리 유기종기 “주인 기다려요”’, 한국일보 2013년 8월 13일자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414327>

다면, A업체에서 충당하지 못한 마릿수를 B업체가 만족시켜야만 한다. 하지만 동물자유연대의 현장 조사에 따르면, B업체는 판매업체 등록지에 번식 농장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B업체에서 공급하는 강아지의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B업체를 취재한 한 기자에 따르면, 직접 번식을 하지 않고 다른 번식장에서 공급받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2. A업체 강아지 공급 추정 계산>

(단위: 마리)

| 모건 마릿수 | 평균출산 마릿수 | 연간 출산횟수(회) | 연간자견 마릿수 | 비고 |
|-----------------------------|-------------|---------------|-------------|---|
| 300: 전체종견 | 4 | 1 | 1200 | 강아지 및 은퇴견을 제외하면 출산 가능한 숫자가 300마리에 미치지 못하므로 불가 |
| 154: 전체종견 중 암컷 70% | 4 | 2 | 1232 | 전체 공급량의 절반을 맞추기 위해서는 연간 2번 출산해야 가능하며, 이는 A업체의 대표가 언급한 년 1회 출산에 위배 |
| 103: 안식년 모건 30% 제외 | 4 | 3 | 1236 | 3번 출산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불가 |

<표3. 두 업체가 공급해야 하는 마릿수 추정 계산 >

(단위: 마리)

| A: 몰리스 펫샵 매장수 (2013년기준) | B: 매장별 판매마릿수/월 | 연간 공급 추정 마릿수 (A*B*12개월) | 몰리스 펫샵에 절반씩 공급(A, B업체)기준 |
|-------------------------------|-------------------|-------------------------------|-----------------------------|
| 20개 | 10 | 2400 | 1200씩 |

② B업체 불법운영의 가능성

몰리스 펫샵에 강아지를 공급하는 또 다른 B업체는 동물병원이고 현장 조사 시 병원 내 개가 늘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B업체의 대표이사가 운영하고 있는 동물병원 주소는 경기도 광주시 **읍 **로 ****번지 2층으로 되어 있다. 이 주소로 동물판매업을 등록한 날짜는 2016년 5월 12일이다.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한 결과 B업체는 2011년 등록했다가 2012년 12월 말에 폐업하였고, 다시 등록한 날짜는 2016년 5월 12일이다. 이는 **2013년, 2014년, 2015년 3년간 불법 운영의 가능성을 드러낸다.** 이는 2015년 몰리스 펫샵을 퇴사한 직원의 증언에서도 드러났다. 증언에 따르면 폐업신고가 된 2015년 근무 당시 B업체에서도 강아지를 공급받아 왔다고 한다.

3) 일부 몰리스 펫샵 강아지들의 불투명한 출처

동물자유연대는 2016년 5월 몰리스 펫샵을 현장 조사하였는데, 매장 앞에는 번식농장에 대한 정보가 게재되어있지 않은 곳이 있었다. 앞서 언급한 A업체와 B업체가 위치한 시흥과 광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명은 소비자나 사실상 번식장의 출처를 전혀 알 수 없다.

다음 매장의 경우다.

① 안산점(10마리), 자양점(9마리), 분당점(9마리), 양재점(10마리) 이 중 출처를 알 수 없는 강아지들이 있다.



사진2. 번식장 출처를 알 수 없는 강아지들

② 성수점의 경우 총 마릿수는 6마리이며, 이 중에 인천과 용인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강아지들이 있다. 다음과 같다. 잉글리시 불독(용인), 말티즈 (인천), 비송프리제 (용인), 치와와 (용인)



사진3. 출처를 알 수 없는 강아지들

③ 센트럴시티점의 경우 총 마릿수는 11마리이며, 인천으로 표기되어 있는 강아지들이 있다. 다음과 같다. 치와와 (인천), 말티즈(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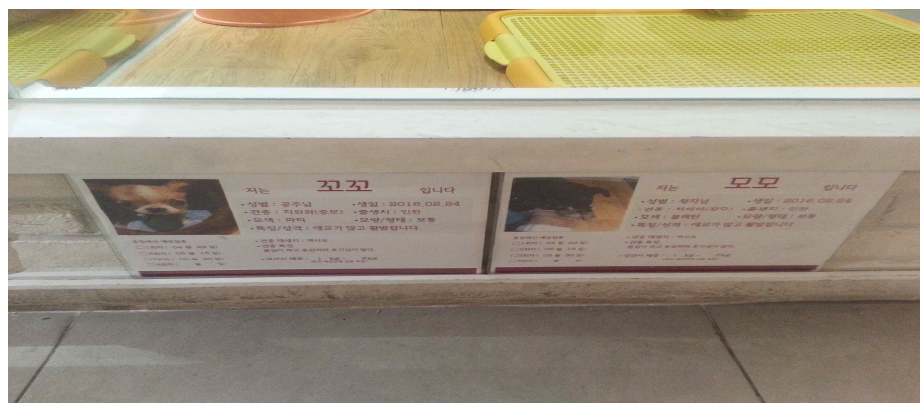


사진4. 출처를 알 수 없는 강아지들

④ 월계점의 경우 총 마릿수는 16마리이며, 미표기 혹은 시흥이라고 적혀있다.



사진5. 출처를 알 수 없는 강아지

⑤ 킨텍스점의 경우 총 마릿수는 12마리이며, 인천과 파주로 표기된 강아지들이 있다. 다 음과 같다. 시츄(인천), 베들링턴테리어(파주), 말티즈(파주), 포메라니안(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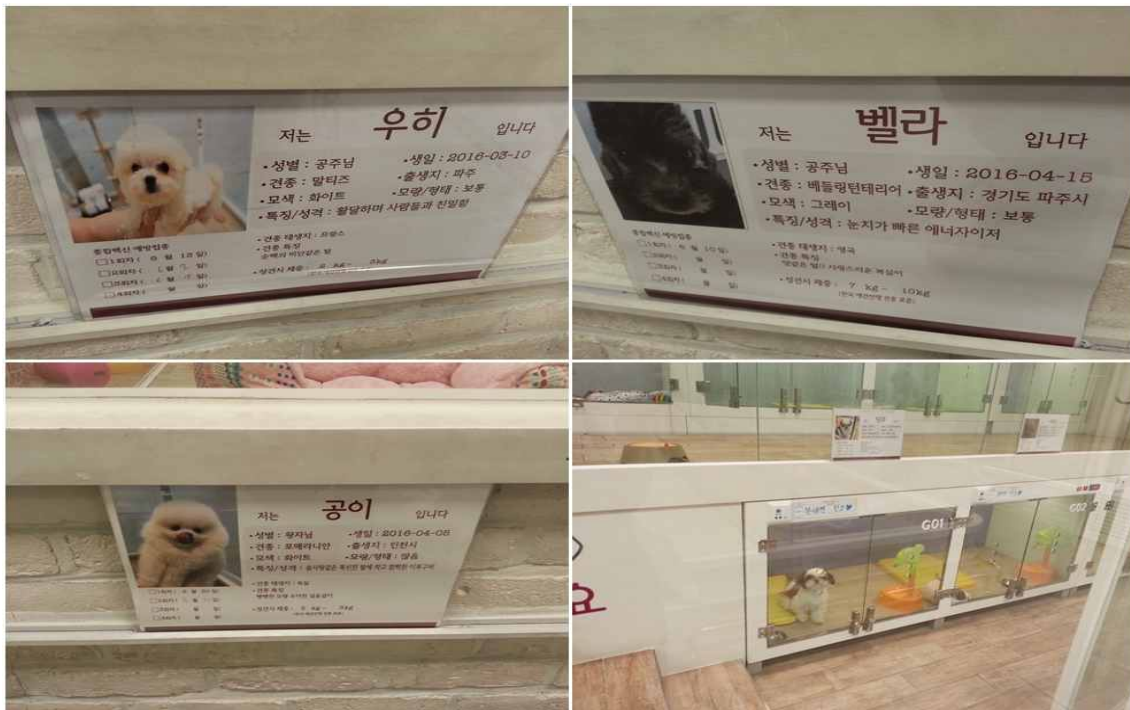


사진6. 출처를 알 수 없는 강아지들

⑥가든파이프점의 총 마릿수는 7마리이며 인천으로 표기된 강아지와 고양이가 있다. 다음과 같다. 말티즈(인천), 삼 고양이(인천), 푸들(미확인)



사진7. 인천에서 온 말티즈와 삼 고양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리스 펫샵의 주장과는 달리 각 매장에는 A업체와 B업체 외의 지역에서 온 강아지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강아지들이 어느 농장 혹은 개인에게서 오는지는 알 수가 없다. 물리스 펫샵은 A업체와 B업체 외의 다른 번식장에서 온 개들의 정보에 대해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다.

4) 도태견, 장애견의 처리에 대한 정보 불투명

<제보자의 증언1/2016년 7월 18일>: 물리스 펫샵의 A지점에서는 “아픈 개가 불쌍해서 구매해 간 어느 소비자가 뒤늦게 다른 장애를 발견하여 물리스 펫샵에 가격을 낮춰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다고 한다. 여러 번 항의 끝에 일부 환불 받는 것으로 종결되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 물리스 펫샵은 팔리지 않은 강아지들은 모두 가격을 낮춰서라도 분양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 소비자들은 소위 ‘کم플레인’으로 구매해 간 강아지를 파양하고 있을 가능성

이 높다. 또한 이는 분양이 되지 않는 강아지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보자의 증언2/2016년 7월 18일>: 몰리스 펫샵 S점에서는 “입질이 심해 가둔 스탠다드 푸들이 있었는데 행동교정을 위해 훈련소로 보낸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이후에 직원이 입양하였다고 한다.

<제보자의 증언3/2016년 7월 21일>: 몰리스 펫샵 H점: 앞다리에 김스를 한 푸들을 보고 고객이 이 강아지는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매장에서 ‘분양이 될 때까지 데리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최초 분양가가 90만원인데 10개월가량 되어 40만원까지 가격이 떨어졌는데 다치고 큰 강아지이니 가격을 더 낮출 것을 요구하자 분양가는 본사가 결정하는 문제라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매장에 들어오는 강아지들 중에 경매장 표시로 추정되는 번호가 배에 있었고, 귀에 진드기가 있는 강아지도 들어온다고 한다. 매장에 와서 파보 바이러스로 아픈 경우가 있으면 A업체와 B업체로 다시 회송하는데, 때로는 직원들이 매장에 따로 격리시키기도 한다고 증언했다. 다른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배에 숫자가 있는 강아지가 있고 유전적 결함이 있는 강아지는 매장 매니저와 본사 합의 후 회송 처리한다고 한다. 미분양시 매장에서 재량에 따라 반려견 놀이터에 풀어놓거나 케이지에 가둬두기도 하는데 간혹 선천적 이상이 있는 경우 속여팔라고 하는 매니저의 지시를 받기도 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여러 제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미분양시 할인판매, 직원분양, 점포 이동, 회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결론

몰리스 펫샵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2개월 이상 된 강아지와 고양이만 분양한다.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분양하지 않는다. 정식 검역 절차를 거친 소동물만 분양한다. 동물별 지정 분양장에 배치하여 좋은 컨디션을 유지한다. 분양장 별로 청소도구를 분리하여 사용하며, 수시 청소로 청결을 유지한다.”

동물복지의 원칙이란 매장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번식장에서 판매업소까지 전반적으로 동물의 생태를 저해하는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것이다. 쇼핑을 하다 쉽게 접근해 강아지를 구경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충동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구조, 스탠다드 푸들이 마스코트처럼 매장에 상시 등장하여 방문객들의 시선을 끄는 판매행태 등은

무책임한 구매를 조장하고, 비인도적인 동물보호의식을 심어줄 뿐이다.



사진8. 물건처럼 진열되어 있는 강아지와 유리문을 두드리는 어린 아이



사진9. 지쳐있는 마스코트 스탠다드 푸들의 모습

무엇보다도 현재 몰리스 펫샵은 강아지번식장이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현재까지도 강아지 판매를 유지하고 있다. 판매 중단은 커녕 판매되는 강아지의 전체 마릿수, 모견의 수, 장기간 팔리지 않은 강아지들의 처리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동물자유연대는 몰리스 펫샵이 공개한 업체 두 곳과 몰리스 펫샵 매장을 조사한 후 전체 판매 현황을 추정하여 계산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몰리스 펫샵에 공급하는 강아지를 두 개의 업체가 공급하고 있다는 몰리스 펫샵 측의 주장에는 여러 모순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몰리스 펫샵에 공급하는 강아지를 A업체와 B업체가 절반씩 공급하고 있다면 동물병원으로 판매업 등록을 한 B업체가 전체 28개 매장에서 팔리는 강아지의 절반을 공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다. 또한 매장에는 A업체와 B업체 주소가 아닌 다른 지역명이 적힌 안내판이 있다. 이것은 결국 강아지들이 출처를 알 수 없는 번식장에서 온다고 파악할 수 있다. 몰리스 펫샵은 전체 매장에서 팔리고 있는 강아지들의 공급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대형마트 내 강아지 판매 사례가 없음을 인정하고 강아지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